

2005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안순태(방송대)

1. 머리말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3. 지방문학과 문학지리학
4. 소품문 연구의 침체와 일상성에 대한 관심
5. 맺음말

1. 머리말

학문 분야가 날로 세분화되면서 연구자들은 각 세부 분야의 심연에 침잠되어 가고 있다. 한문학 전공자는 구비문학을 공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 조선후기 한문산문 전공자는 고려시대 한시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필자 자신부터가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래에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학·한국학이 통합적 성격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문학을 중심으로, 문화사적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논문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야 국학·한국학의 통합적 연구가 실현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국문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사 검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학·한국학의 통합적 연구로 나아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문학회의 연구사 검토는 고전문학 각 분야의 연구 동향을 개관하여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나 고전문학의 다른 세부 전공의 연구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한문학 전공자가 고전소설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다른 어떤 자료보다 『국문

학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연구사 검토를 살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국문학이, 국학·인문학의 통합적 연구로 다가서는 데 있어서 수고를 덜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더 탐구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인접 세부 전공과 인접 학문에서 난관 타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사 논문에서 서두를 장식하는 것은, 1년 동안 이루어진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이다. 필자도 그 전통 아닌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고, 연구사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그저 겹사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수다한 논문들 가운데 제대로 읽어본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0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한문학 분야에서의 연구의 쟁점을 본고를 통해 선명하게 부각시킬 재주가 필자에게는 없다. 다만 필자의 관심에 따라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2. 연구 경향에 대한 개괄

본고에서는 2005년에 간행된 각종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학위논문 가운데 한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시작가론 분야였다. 이밖에도 산문 연구, 비평, 대중적 저술, 새로운 자료의 소개, 번역 등이 골고루 이루어졌다.

근래 수년 동안 한문학 연구사 검토 방법은, 발표 형식에 따라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발표 논문 등으로 구분하여 살피고, 주목되는 동향에 대해 주제론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본고 역시 그러한 방법을 따른다. 단행본으로 출간했던 학위논문으로 작성했던 정기간행물에 발표했던 그것이 논문의 특성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논문 발표 방식이 논문의 특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문을 쓰는

주체의 범주가 달라지고, 발표 방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양식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학위논문은 대부분 소장 학자가 쓰고, 단행본은 중견 학자가 펴 낸다. 정기간행물에 발표하는 논문은 그 두 부류가 함께 담당한다. 그 셋 가운데 최근의 연구 동향을 상대적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를, 단행본이나 학위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완성하여 내놓는,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일 것이다. 학위논문처럼 긴 시간을 두고 구상하여 작성하지 않고 근래의 착상을 상대적으로 짧은 지면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먼저 2005년에 간행된 단행본과 학위논문의 경향에 대해 간략히 살핀다.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논문들은 그 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워낙 다양하기에 첨부한 목록으로 대체하고, 주된 경향이나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뒤에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먼저 2005년도에 출간된 단행본에 대해 살펴보자.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내놓은 것으로 『강산 이서구의 삶과 문학세계』(남재철),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박수밀), 『낙하생 이학규 문학 연구』(백원철),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 연구』(조영호), 『고려 말 한시의 풍격과 문예미』(최광범)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작품선집 성격을 갖는 단행본들로 『삼한시귀감』·『동문선』·『청구풍아』·『기아』·『대동시선』 등에 중복 선발된 신라·고려시대 시들을 모은 『신라·고려시대의 명시』(김건곤), 거절로 기획되어 지난 1998년부터 간행되기 시작, 이번에 세 번째 결과물로 서거정(16·17), 이승소·김종직(18), 김시습(19·20)의 시를 역주한 『한국한시대관』16~20(이종찬) 등이 보인다. 또 기획논문집의 성격을 갖는 단행본들도 간과할 수 없는데, 우선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이혜순 등)이 주목된다. 이 책은 이동환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며 기획된 저작물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대별로 한문학 각 분야의 논문들을 묶고, 끝에는 총론과 경학까지 덧붙인, 무려 42인의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한 거작이다. 그 밖에도 동아시아 문명의 패러다임에 따라 발전한 서사 문화의 양식 및 관습과 관련한 논문들을 엮은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임형택·진재교 외), 다산과 연암의 실학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퇴계·남명 등의 시문학 및 일제시대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논문들을 엮은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송재소) 등도 논문집의 성격을 갖는 단행본들로서 주목할 만하다.

2005년도에도 적지 않은 한문 고전들이 번역 간행되었다. 개인의 시문집을 번역한 것들로는, 세밀한 주석을 덧붙여 이색의 한시를 번역한 『(역주)묵은 시고』(여운필·성범중·최재남 공역), 조선중기 간관으로 이름이 높은 우암 김주의 『우암집』을 번역한 『(국역)우암 김주 문집』(심경호 역), 민족문학사 연구소에서 7년 동안 매천 황현의 저작을 강독한 것을 결과물로 내놓은 『역주 매천아록』(임형택 외 역) 등이 보인다. 한편 대중 독서물로 기획된 것으로서 특정한 성격을 담지한 저작물이나 자료를 번역하고 경우에 따라 평설이나 감상문을 덧붙인 책들도 적지 않았다. 『연암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 서울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연암선생 서간첩』을 번역하고 각 편지마다 해설을 덧붙인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박희병 역),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가운데 집과 관련하여 어떤 곳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지어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제시한 「이운지」·상택지·「섬용지」 부분을 번역한 『산수간에 집을 짓고』(안대회 편역), 조선후기의 인물전을 가려뽑아 번역한 『알아주지 않은 삶』(진재교 역), 유득공의 산문을 뽑아 번역한 『누가 알아주랴』(김운조 역)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계절마다의 詩情을 감발시키는 한시를 소개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그 시정을 풀어낸 『꽃들의 웃음판』(정민),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한시를 번역하고 설명을 덧붙인 『옛 노래 속의 낭만연인』(이민홍), 우리나라의警句를 모아 번역하고 감상을 덧붙인 『죽비 소리』(정민), 황진이·허난설헌·이옥봉 등 13인의 여성 시인들의 시를 번역하고 그들의 삶을 시와 함께 해설한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이혜순) 등도 보인다.

작가·작품론적 연구서로는 『김호연재의 한시 세계』(민찬) 등이 출간되었고, 83편의 한문소설에 대해 이본을 대비하여 교감하고 주석을 단 『한국 한문소설 교합구해』(박희병 표점·교석), 이광사의 『원고집선』과 『두남집』 등을 교감하여 엮은 『(신편)원고 이광사 문집』(심경호 외 편) 등이 자료집적 성격을 갖는 저서로 출간되었다. 또 규장각에서 나온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전 4책)도 왕실 문학의 면모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4판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참고문헌을 고친 것 외에, 큰 체제는 이전의 것을 유지하면서도 총론 부분에서 문학사 이해의 관점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자. 필자가 확보한 목록만을 두고 보건대 학위 논문에서 예년과 크게 다른 경향이 발견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 모두 작가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고려 전기 한문학 연구(권혁진, 강원대), 옥수 조면호 한시 연구(김용태, 성균관대), 「간이 최립 산문 연구(김우정, 단국대), 「낙전당 신익성의 문학 연구(김은정, 서울대), 경정 이민성 문학의 연구(문명순, 성균관대), 연경재 성해응 산문의 연구(손혜리, 성균관대), 목은 이색 산문 연구(원주용, 성균관대), 학음 심원열의 시문 연구(이준규, 고려대), 「우선 이상적과 만청 문인의 문학교류 연구(이춘희, 서울대), 이덕무의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이학당, 성균관대),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정은진, 성균관대) 등이 있다. 예년에는 한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압도적이었으나 2005년에는 산문 연구와 비평 연구도 적지 않았고,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신상필, 성균관대)처럼 한문산문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킨 성과도 있어 특기할 만하다. 또 최립이나 이덕무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논문들은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문인들에 관한 것들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문학 연구 대상 작가의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이 시와 산문에 걸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 반해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시에 치우쳐 있으며 새로운 작가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작가론적 고찰과 한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허응당 보우의 시에 대한 고찰(권동순, 성균관대), 궤애 김수온의 문학의식과 시세계(나민정, 성신여대), 이학규의 영남악부·「해동악부 연구(석진주, 고려대), 모재 김안국의 시문학 연구(손유경, 성신여대), 「매월당 김시습의 시문학 연구(이지연, 동아대), 「하당 권두인의 문

학세계(임덕선, 안동대), 「조정 박재가의 시세계와 그 변모 양상(최유진, 고려대) 등이 보인다. 산문 연구도 간혹 눈에 띄었는데 계곡 장유 산문 연구(강주란, 이화여대), 강한 황경원 산문 연구(백진우, 고려대) 등이 있고, 문체론적 연구로 「조선후기 가전 연구(허지영, 성신여대), 박종채의 『과정록』 연구(홍아주, 서울대) 등이 있다. 홍아주의 논문은 그동안 『과정록』과 박종채를, 연암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편으로만 활용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문인으로서의 박종채가 하나의 온전한 텍스트로서의 『과정록』을 창작했다고 전제한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산문비평 연구로는 서유구의 문집에 나타나는 평어를 통해 서유구의 비평 의식과 미적 지향을 살핀 『풍석고협집』의 평어 연구(김대중, 서울대), 이덕무의 비평안을 살핀 이덕무의 명대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위홍, 성균관대) 등이 보인다.

정기간행물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최신 학계의 동향과 관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각 학회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마련하는 특집 주제가 아닐까 한다. 지난 2004년 학술대회부터 시작된 국문학회의 특집 주제, “한국문학과 일상적 삶”에 관한 논의는 2006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회들의 특집 주제 중 2005년 한 해 동안 ‘일상성’과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또 한국고전문학회가 개최한 “陶南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성과가 『고전문학연구』 27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남의 생애와 학문」(김명호), 「도남 국문학의 성격」(김종철), 「도남 국문학사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인식」(류준필), 도남 소장 고서의 서지적 분석(옥영정) 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도남이 “한문 및 문학형식으로서의 한문학의 역사적 실체를 인정하고” “국문학을 학문으로서 처음 개척한”(임형택·개회사) 업적을 들어 도남의 학문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있다. 『고전문학연구』 28집에서는 “『한국문학통사』를 통해 본 문학사 서술의 성과와 과제”를 특집으로 하고 있다. 모두 세 편의 기획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문학통사』의 특징과 의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점에서는 주목되지만 이전판과 달라진 4판의 특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지방문학과 문학지리학

학계에서는 조동일을 중심으로 이미 몇 해 전부터 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문학사 기술에 대해 구상하고 그에 대한 시론적 논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세계화는 지방화의 추세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조동일은 지난 2003년에 지방문학사 관련 저술¹⁾을 내놓은 데 이어, 2005년에는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2를 내놓았다.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연구해 지방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5면) 하기 위해 ‘세계화와 지방화의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그 둘을 동시에 이룩하는’(5면) 연구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였다고 했다. 정년 퇴임 이후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어 착상 모음집을 만들고자’(13면) ‘논문 작법의 격식을 따르지 않고’(12면) 자유롭게 서술하겠다고 했다. 이 저서는 저자 스스로 서두에 ‘착상 모음집’이라고 전제하였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한 착상들을 어지러이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논문 작법의 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각 강좌별로 서두 부분에 강좌 주제와 관련한 서론 격이 되는 글이 자리 잡고, 착상들의 배열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토론으로 종합하여 끝맺는 구성을 취하여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착상들의 모음이니만큼 가볍지 않은 주제라도 경쾌한 문체로 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 준다. 앞으로 10책까지 기획되어 있는 이 책은 향후 후학들이 국문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 세계문학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때 여러모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저술로 보인다. 지방문학과 관련해서 『한국문집총간』 1책에서 50책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명승고적 관련 記文들에 대한 해제를 지역별로 묶어 간행한 『한국 명승고적 기문사전』(김건곤·안대회·이종묵·정민)도 주목할 만하다. 『(한문학 속에 남아있는)울산지역의 풍광과 풍류』(성범중)에서는 울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비

롯하여 울산 지역민의 변경 의식, 처용과 처용 설화, 박제상과 치술령, 울산 지역의 승경지와 그에 관한 시문학을 살펴 지방문학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문학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저작이 ‘문학지리학’의 가치를 내걸로 3책으로 출간된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김태준 편)이다. 조동일이 총론 「문학지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세계’는 시간인 ‘世’와 공간인 ‘界’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적 인식인 ‘역사’에는 크게 힘쓰면서도 공간적 인식인 ‘지리’는 등한시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문학에서는 국문학에 대한 시간적 인식이 ‘문학사’로, 공간적 인식이 ‘문학지리학’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하여 문학지리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이어서 문학지리학의 연구 대상을 크게 ‘지방 문학’과 ‘여행 문학’으로 범주화하고 지방 문학은 다시 고을 문학과 산천 문학, 사원 누정 문학으로 분류하고 여행 문학은 다시 국내 여행 문학, 한국인 외국 여행 문학, 외국인 한국 여행 문학으로 분류하여 문학지리학의 구도를 구체화했다. 총론 이후 1부에서 6부까지는 서울·경기, 충청 등과 같이 큰 지역 범주를 설정하고 郡 단위로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지역과 관련한 문학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또 7부에서는 강과 산, 그리고 섬을 중심으로 항목을 설정하였고, 마지막 8부에서는 천당, 지옥, 용궁, 무릉도원 등과 같은 ‘한국인의 심상공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선 시대 『동국여지승람』 등의 전통을 잇고자 애썼고,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근대 이후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던 것을 문학지리학으로 체계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과 각론이 상부하고 있지 못한 점, 서술의 체제나 방식이 필자마다 다른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앞의 문제점은 총론이 먼저 기획된 후에 그것을 지침으로 각론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총론과 각론이 동시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겠고, 뒤의 문제점은 역시 기획 단계에서 필자들에게 지역 할당만 하고 구체적인 서술 체제는 필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서술 체제의 다양성은, 필자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서술 체제를 선보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자면 문학지리학의

1)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 출판부, 2003.

방법론과 서술 방식을 탐색한 이 책이 향후 문학지리학 연구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 외에도, 단행본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지만 『문헌과 해석』에 수록된 일련의 문학지리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소품문 연구의 침체와 일상성에 대한 관심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의 목록을 살펴다 보면 소품문과 관련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²⁾ 이 점은 필자에게 적잖이 흥미로운 점이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석사학위 논문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 목록에서도 소품문과 관련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품문에 관한 논문들을 점검하고 소품문 관련 주요 논문들을 모아 엮은 단행본³⁾까지 나와 바야흐로 소품문 연구의 전성시대가 된 듯하다고 느끼던 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물론 필자가 채 찾아보지 못한, 소품문 관련 논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요 몇 년간 한문 산문 연구의 흐름을 두고 볼 때 2005년도에는 소품문 연구 논문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향만은 두드러지다고 하겠다.

반면 우리 문학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논문들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⁴⁾ 2004년부터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일상성과 문학’이라는 주제가,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목록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2006년도에도 일상성과 관련한 논문들⁵⁾이 있어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

심은 단발적인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⁶⁾ 그런데 소품문과 일상성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소품문 연구의 침체와 일상성 연구의 활성화 사이를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 문혀버리기 쉽지만 우리 삶에서 비밀비재한 것, 구체적인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 역사의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이면에 내재해 있으면서 역사의 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것, 이러한 점들이 소품문과 일상성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소품문 연구가 침체되고 일상성 관련 연구가 활기를 띠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연구자들의 소품문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일상에 관한 일종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라면,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소품문이 지어지게 된 배경 내지 저변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품문 연구가 침체되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일상성으로 옮겨갔다고 말하기보다 소품문으로 표출되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일상 문화 전반으로, 그 저변이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한다. 만일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한문학 연구 방법론 개척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국학·한국학의 통합적 연구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시간 부족으로, 더 언급하고 싶었던 논문들, 읽어보고 싶었던 논문들을 언급하지 못했고 읽어보지 못했다. 강혜선의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 시론-북한의 최근 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한문학

2) 필자가 조사한 논문 목록에 의하면 국문학계에서 2005년에 발표된 논문 중 소품문이 주제로 제시된 논문은 김성진, 「18·9세기 한일양국의 명칭소품문 수용에 대한 비교연구」(『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하나뿐이다.

3) 안대회 편,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제』, 태학사, 2004.

4) 강혜선, 「조선후기 여성 대상 祭文과 墓誌銘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안대회, 「楚亭 朴齊家の 인간면모와 일상-小室을 맞는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윤재환, 「17세기 漢詩에 수용된 日常의인 것의 意味와 限界-梅山 李夏鎭의 詩를 中心으로」,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5) 김동준,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국문학연구』 14, 2006.; 김남기, 「일기 등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성의 양상」, 『국문학연구』 14, 2006.; 강명관, 「한문학 연구와 일상」,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신익철, 「이옥 문학의 일상성과 사물 인식」, 『한국실학연구』 12, 한국실학학회, 2006.

6) 한국한문학회는 2005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민족·근대·동아시아·일상·성·생태라는 여섯 가지 주제를 통해 향후 한문학 연구의 방향을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일상성’은 근대 한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강명관은 앞의 논문에서, 그동안의 ‘민족’이나 ‘근대’와 같은 거대 담론에 입각한 연구를 지양하고 한문학과 ‘전근대인의 일상’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전근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전근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구체적 양상, 혹은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활로를 찾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연구 실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 4권의 특징과 의의, ‘문헌과해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8세기 문화지도 등은 차후에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동일이 『한국문학통사』 4판에서 역설한, 북한의 문학사까지 온전하게 아우르는 ‘우리문학사’ 서술을 위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쪽에서 감당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줄 안다.

한편 한문학 연구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문학과는 표면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문학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논문들, 이를 테면 서지학·문화사·사상사 관련 논문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문학 연구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다. 인접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성에 대한 탐구로부터, 문학 연구자들도 적잖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재철, 『한시문학의 이론과 비평의 실제』, 단국대출판부, 2005.
 김건곤, 『신라·고려시대의 명시』, 이회문화사, 2005.
 김건곤·안대회·이종묵·정민, 『한국 명승고적 기문사전』, 이회문화사, 2005.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민풍 수용 연구』, 보고서, 2005.
 김주 저, 심경호 역, 『(국역)우암 김주 문집』, 시간의물레, 2005.
 김지용 역,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 상·하, 명문당, 2005.
 김지용, 『연암 박지원의 이상과 그 문학』, 명문당, 2005.
 김진영·김동건, 『稼亭 李穀 詩語 索引』, 이회문화사, 2005.
 김태준 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 공간』 상·중·하, 논형, 2005.
 남재철, 『강산 이서구의 삶과 문학세계』, 소명, 2005.
 류성준, 『中韓詩學研究的歷程』, 신성출판사, 2005.
 민 찬, 『김호연재의 한시 세계』, 다운샘, 2005.
 박수밀, 『박지원의 미의식과 문예이론』, 태학사, 2005.
 박지원 저, 박희병 역,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2005.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 交合句解』, 소명출판, 2005.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 연구』, 보고서, 200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서울대 규장각, 2005.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옛사람의 집짓는 법』, 돌베개, 2005.
 성범중, 『(한문학 속에 남아있는)울산지역의 풍광과 풍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송재소, 『한국 한문학의 사상적 지평』, 돌베개, 2005.
 심경호 외 역, 『(신편)원고 이광사 문집』, 시간의물레, 2005.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안대회, 『단원 풍속도첩』, 민음사, 2005.
 여운필·성범중·최재남, 『(역주)목은시교』 9·10, 월인, 2005.
 유득공 저, 김윤조 역, 『누가 알아주랴』, 태학사, 2005.
 이덕무 저, 고전문학연구회 역,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거송미디어, 2005.
 이민홍 편역, 『옛노래 속의 낭만 연인』, 국일미디어, 2005.
 이민홍, 『시법(시호 한 글자에 담긴 인물평)』, 문자향, 2005.

7) 강혜선,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 시론-북한의 최근 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화회, 2005.

- 이우성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 『碧史館文存』, 창비, 2005.
 이종찬, 『한국한시대관』 16~20, 이회문화사, 2005.
 이혜순 등 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이혜순, 『한국 고전여성작가의 시세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임형택,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정 민, 『죽비 소리』, 마음산책, 2005.
 _____, 『꽃들의 웃음판』, 사계절, 2005.
 조동일, 『세계 · 지방화시대의 한국학1(길을 찾으면서)』,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한국문학통사』 1~6(제4판), 지식산업사, 2005.
 _____, 『세계 · 지방화시대의 한국학2(경계 넘어서기)』,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조해숙,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서, 2005.
 진재교 편역,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진재교,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6.
 최광범, 『고려 말 한시의 풍격과 문예미』, 한국학술정보, 2005.
 최정동,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푸른역사, 2005.
 황현 저,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원문교주본 · 상 · 하)』, 문학과지성사, 2005.
 가와이 교조 저, 심경호 역, 『중국고전시, 계보의 시학』, 이회문화사, 2005.
 胡應麟 저, 기태완 역, 『(호응린의)역대한시비평』,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2. 학위 논문

<박사학위논문>

- 권혁진, 「고려 전기 한문학 연구: 유교적 문명의식을 중심으로」,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용태, 「옥수 조면호 한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우정, 「간이 최립 산문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문명순, 「敬亭 李民成 文學의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박종우, 「16世紀 湖南 漢詩의 한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손혜리, 「연경재 성해옹 산문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신상필,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 『용재총화』와 『어우야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원주용, 「목은 이색 산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준규, 「鶴陰 沈遠悅의 詩文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학당, 「이덕무의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5.

<석사학위논문>

- 강주란, 「계곡 장유 산문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구태자, 「학봉 김성일의 한시 연구: 장편고시와 이체시를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5.
 권동순, 「허응당 보우의 시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권용철, 「신재 주세봉의 생애과 문학세계」,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대중, 「『풍석고협집』의 평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도형, 「제호 양경우 한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두례, 「연암 <호질>의 풍자성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민주, 「<안방몽유록>의 서사적 전통과 의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선희, 「보우의 사상과 시 세계」,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택, 「목재 홍여하의 역사의식과 문학관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용재, 「울곡 이이의 문학사상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은지, 「이행의 유배시에 나타난 정서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익재, 「조은 한몽삼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5.
 나경민, 「『천예록』과 임방의 야담편찬의식」,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나민정, 「괴애 김수온의 문학의식과 시세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박병규, 「송강 정철의 한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배주영, 「<허생전> 연구: 범고창신에 주안하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백민자, 「김삼의당 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백진우, 「강한 황경원 산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서 랑, 「사호 오장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5.
 석진주, 「이학규의 『영남악부』 · 『해동악부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손갑호, 「여말 문인 초은 이인복의 문학세계 연구: 동문선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손유경, 「모계 김인국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송병하, 「청천 신유한의 산문론과 작품세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로사, 「원증거의 『화국지』에 관한 연구: 그의 일본인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명숙, 「여말선초 서사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산수유기 연구: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안주영, 「18·19세기 사대부여성 한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양동식, 「『김립시집』 원전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오형정, 「獨谷 成石璘의 詩文學 研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위 흥, 「이덕무의 명대 문학 비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위정선, 「고산 윤선도의 <사고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유 정, 「『해객시초』 연구: 전초본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진영, 「박지원이 인식한 청대 종교: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경순, 「洪樂純 文學 研究」,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상순, 「청음 김상현의 <남사록>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상욱, 「조선 과객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지연, 「매월당 김시습의 시문학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체경, 「사숙재 강희맹의 <훈자오설>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춘희, 「도은 이숭인의 한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희수, 「번암 체제공의 기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임덕선, 「하당 권두인의 문학세계」,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재호, 「신광하의 장편고시 연구」, 대구한의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지용, 「기암 정홍명의 한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조민경, 「서에 류성룡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성덕,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진권, 「한·중 영웅열전의 비교연구: 『사기』·『삼국사기』 소재 영웅열전을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진병병, 「한중 풍자소설의 비교 연구: <허생전>·<양반전>과 <유림외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송희, 「後溪 李頤淳 漢詩 研究」,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용순, 「허균의 도교문학 연구: 소설과 시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유진, 「조정 박제가의 시세계와 그 변모 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한미현, 「梅泉 漢詩로 보는 憂國과 現實의 葛藤」,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허지영, 「朝鮮後期 假傳 研究: 영·정조대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홍아주, 「박종채의 『과정록』 연구: 전기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홍혜정, 「이덕무 전의 서사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 황일근, 「임제 문학에 나타난 '육망'과 '시름'의 양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3. 학술지 논문

- 강명관, 「燕巖 時代의 陽明左派 수용」,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강상순, 「한국문학통사」 다시 읽기,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강석근, 「불교 생태학의 시문학적 수용과 그 해석」,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2.
- 강지희, 「매월당의 <和淵明飲酒二十首> 연구: 陶淵明 <飲酒>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9, 민족문학사학회, 2005.
- 강혜선, 「남북한 한문학 연구의 비교 시론-북한의 최근 한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4.
- _____, 「시계와 거문고가 있는 집, 홍대용의 愛吾廬」,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 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연암을 찾아 개성 가는 길」,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 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張混이 인왕산에 그린 집, 而已广」,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 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조선후기 여성 대상 祭文과 墓誌銘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 _____, 「虛를 기르는 사람 金在行」,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 해석사, 2005년 여름호.
- 고미숙, 「연암의 사유에 있어서 “탈근대적 비전”에 대한 탐구-주체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곽정례, 「『僧伽酬唱錄』과 委巷詩社의 연원」, 『어문연구』 1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겨울호.
- 구교현, 「공안파와 연암학파의 문학이론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33,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8.

- 구본현, 「『顧氏畫譜』의 전래와 朝鮮의 題畫詩」, 『규장각』 28, 서울대 규장각, 2005.
- _____, 「李安訥의 東園과 詩壇에 대하여」,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구사희, 「새로 발굴한 申升求의 <關東別曲翻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2005. 5.
- _____, 「石亭 李定稷의 論書詩와 文藝論의 特質」,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의 特質」,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6.
- 권경렬,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 20, 남명학회, 2005. 12.
- 권문봉, 「栗谷 社會改革論의 實學的 照明」,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권오웅, 「冲齋 詩에 대한 小考」,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권정원, 「李德懋 文學의 形成背景에 대하여-公安派 受容과 관련하여」,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_____, 「李德懋 初期散文에서 公安派 受容의 實踐樣相」,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李德懋의 公安派 批評理論의 受容樣相」, 『한문교육연구』 25-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12.
- 권진호, 「后山 許愈의 文學思想」, 『남명학연구』 19, 남명학회, 2005. 6.
- 권혁명, 「棲霞堂 金成遠 詩世界の 一考察」,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금지아, 「朝鮮 申緯의『奏請行卷』研究 -燕行과 翁方綱과의 文墨緣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6.
- 기태완, 「梅泉 黃玿과 石亭 李定稷의 문학논쟁」,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黃梅泉의 중국시에 대한 시각」,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김 호, 「朝鮮刊本 <北京八景詩集> 研究-韓國本 中國古籍의 文獻價値를 검하여 논함」, 『한문교육연구』 25-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12.
- 김건곤, 「歷代 詩選集 所載 漢詩作家 批正-新羅·高麗 詩人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2.
- 김경숙, 「玄川 元重擧의 對馬島人 인식과 그 의미-일본 '內地人'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
- 김남기, 「『열성어제』가 목판본에서 활자본으로 바뀐 까닭은?」,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규장각 소장 冊板의 현황과 가치」,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德溪 吳健의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4.
- _____, 「율곡 이이의 문학 세계」, 『역사문화논총』 1, 신구문화사, 2005. 4.
- _____, 「趙希逸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김남형, 「星湖文學의 實學的 性格(II)」,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김동석, 「수사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읽어보는 『熱河日記』,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야담집에 나타난 여인의 신분갈등과 적서차별」,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김동준, 「18세기 한국한시의 실험적 성격에 대한 연구-李匡師, 李用休, 柳慶種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_____, 「謙齋 鄭澈의 화첩에 대한 李奎象의 題畫詩」,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富寧 流配期 李匡師 漢詩의 내면과 眞情의 문학적 지평」,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疎菴 任叔英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_____, 「지팡이에 새긴 글, 杖銘」,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김명호, 「『燕巖集』 번역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도남의 생애와 학문」,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학회, 2005.
- 김문식, 「<審勢編>을 다시 해독함」,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의 내용 및 특징」, 『규장각』 28, 서울대 규장각, 2005.
- _____, 「윤기가 노래한 성균관 풍경」,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蔡濟恭家 소장 正祖의 御筆」, 『서지학보』 29, 한국서지학회, 2005. 12.
- 김미란, 「淑善翁主의 漢詩 연구」, 『온지논총』 12, 온지학회, 2005.
- 김병건, 「無名子 尹愔 한시의 時代概括과 諷戒의 성격」, 『한문학보』 12, 우리한문

- 학회, 2005. 6.
- _____, 「윤기의 생애와 교유」,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김병민, 「동아시아 근대지향의 태동과 조선지식인의 자각-燕岩에서 魯迅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김봉좌, 「조선시대 문서규칙서」, 『유서필지』,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김상홍, 「茶山의 韓愈, 柳宗元論」,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김석태, 「梵海 覺岸의 濟州 旅行과 紀行詩」,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학회, 2005. 10.
- 김성기, 「梁慶遇의 詩認識과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김성룡, 「고전 문학 분야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경향」,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학회, 2005. 10.
- _____, 「心性 假傳을 통해 본 寓言의 詩學과 文學教育學」,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김성언, 「조선조 관각문신의 시세계, 茶山 睦大欽論」,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_____, 「泰村 高尚顏의 詩文에 나타난 重農思想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김성진, 「18·9세기 한일양국의 명칭소품문 수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12.
- _____,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8.
- 김영봉, 「濂洛風 漢詩의 주제 표출 양상」,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6.
- 김영숙, 「李漢 「海東樂府」의 古歌謠 歌話 수용과 再構 樣相」,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배와 김상숙의 생애와 교유, 저작」,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例軒 이철환의 생애와 『象山三昧』」,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_____, 「이규상 집안의 가계, 저술, 장서」,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산문 작품을 통해 본 玉垂 趙冕鎬의 문학적 지향」,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김용태, 「玉垂 趙冕鎬를 통해 본 秋史 金正喜」,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김유현, 「조선시대 도학적 隱士 문화-퇴·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김우정, 「15세기 기서문의 성격과 의의-乖崖, 四佳, 점필재를 중심으로」,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_____, 「崔岵의 <山水屏序>와 柳夢寅의 <無盡亭記>를 통해 본 古文辭의 文藝美」,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김월성, 「秋史 金正喜의 藝術觀과 佛敎의 영향」,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여름호.
-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6.
- 김윤조, 유득공 관계 자료-『冷齋集』 및 『幾何室詩藁略』, 『蠶西窩遺藁』 등」,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김은정, 「申翊聖 가문의 문집 간행-새 자료 『先集』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張維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김익환, 「<東行記>의 隨筆의 特性과 意義」,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6.
- 김자현, 「효의 감성과 효의 가치: 조선후기 효 담론의 변화」,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6.
- 김정환, 「梅泉 黃玟의 『苟安室新稿』 연구」,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김종서, 「16세기 湖南詩壇 詩의 自然스러움」,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_____, 「겨울 閑情」,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매미소리」,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봄비」,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빗소리」,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朴趾源 <塵公塔銘>과 李德懋 評의 의미」,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思菴 朴淳 시의 풍격 특성-<淸邵>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9, 한국시가학회, 2005. 11.
- _____, 「蓀谷 李達 시의 風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옥봉 백광훈 시의 함축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_____, 「학을 애도하며」,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김종진, 「李穀의 산문에 나타난 성리학과의 교섭 양상」,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김주수, 「晦隱 南鶴鳴 시세계 연구」,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김지영, 「洪大容의『醫山問答』을 통해 살펴본 한국 生態 思想의 가능성」,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여름호.
- 김철범, 「19세기 산문론에서 實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김풍기, 游齋 李玄錫의 독서경향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김하라, 낙하생 이학규 서간문의 自己敍事的 특성」,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 속의 병자호란: 고난을 기억하는 방법」,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
- 김현주, 「挹翠軒 朴間 詩의 風格 研究」,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김형섭, 「南泰膺과『聽竹畫史』」,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김혜숙, 「이춘원 시의 기법과 정취」,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5.
- _____, 「李春元과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김효경, [새자료] 이정직의 간찰서식집 『尺牘易知』,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남은경, 「潛谷 金埴 문학의 특성 연구-17세기 漢黨 문인 고찰의 일환으로」,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남재철, 「菊圃 姜樸의 시세계와 세시기속시」,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노경희, 「17세기 明代文學論의 流入과 漢文散文의 '朝鮮的' 전개에 대한 一考-申最·金錫胄 選集·刊行의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류준필, 「도남 국문학사의 근대문학 서술과 근대인식」,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 민병수, 「애국계몽기 韓末四大家의 漢詩」,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박기석, 「〈虞裳傳〉 研究」, 『고전문학과 교육』 9, 청관고전문학회, 2005. 2.

- _____, 「朴趾源의 交友論」, 『고전문학과 교육』 10, 청관고전문학회, 2005. 8.
- _____, 「박지원의 교우론」,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8.
- _____,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호질>」, 『태릉어문연구』 12,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2005. 2.
- 박명희, 「旅菴 申景濬의 詠物詩 연구」,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10.
- _____, 「旅菴 申景濬의<詩則>再論」,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6.
- 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_____, 거세된 언어와 사적 전언-이광사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방식」,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12.
- _____, 정약용의 초기(사환기) 산문에 대하여」,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2005. 5.
- _____, 국제문화재단 편, 「규방의 한시문화와 가족사회」, 『한국의 규방문화』, 박이정, 2005. 8.
- 박성규, 「李奎報 年譜 研究(2)」,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박수밀, 「18세기 새로운 글쓰기의 대응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6.
- _____, 「朴齊家 詩에 나타난 삶의 궤적과 내면의식-『貞蕤閣詩集』 2권의 창작 시기 考究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_____, 「박지원의 노장사상 수용과 신선관」, 『도교문화연구』 22, 동과서, 2005. 4.
- _____, 「조선후기 독서론과 독서 방식의 변화: 18세기 연암일과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3, 국제어문학회, 2005. 4.
- _____, 「沆瀣 洪吉周 문학 세계의 인식기반」,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박수천, 「崎庵 鄭弘溟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_____, 「晴窓軟談의 批評樣相」,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박연호,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 교육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2.
- 박영미, 「『大東學會』·『新文界』·『朝鮮文藝』 소개 漢詩에 나타난 '봄' 상징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박용만, 「李匡贊의 시문비평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박은정, 「18세기 한구정맥론과 그 의미」, 『은지논총』 12, 은지학회, 2005.
- 박종우, 「16세기 湖南士林 漢詩의 武人 形象」,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박철상, 「[새자료] 古歡堂 姜瑋가 엮은 『韓四客詩選』,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開城의 進士 崔鎮觀과 燕岩」,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글씨를 닮은 사람, 사람을 닮은 글씨」,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徐南原이 厚齋 直所에 회답한 편지」,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선인들의 편지읽기」,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박태성, 「한시에 나타난 지리산의 형상」, 『연민학지』 12, 연민학회, 2005.
- 박현규, 「〈圓測法師像贊〉 풀이」,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고려말 性理學과 李齊賢의 수용 과정」,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金中淸의 『朝天錄』과 부정적인 許筠 모습」,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_____, 「朴趾源 초록본 『金石錄』 분석」,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조선 李尙迪의 청 符葆森 『國朝正雅集』 논평시 분석」,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6.
- _____, 「許筠 詞 분석」,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박희병, 「통합인문학으로서의 한국학」, 한영우 편,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2005.
- 배미정, 「東陽尉 申翊聖의 廣州 別墅」,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백승호, 「아름다운 사제 간의 인연-번암 간찰」,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백진우, 江漢 黃景源의 고문인식과 창작의 실제양상」,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변종현, 「고경명 한시의 풍격 연구」, 『동양학』 3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2.
- 서신혜, 「〈晩河夢遊錄〉 親筆本과 石印本 비교」,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서정화, 「박제가의 祭文 및 送序 연구」, 『어문논집』 51, 고려대 민족어문학회, 2005. 4.
- 성당재, 「藥泉 記文의 山水美 形象과 敘述의 特征-〈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겨울호.
- _____, 「약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성범중, 정서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 『한국중세사연구』 19, 한국중세사학회, 2005. 10.
- _____, 「淸陰 金尙憲의 삶과 詩」,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손혜리, 「성해옹의 열녀전에 대하여-열녀인식과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송미령,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본 淸朝의 통치」, 명청사연구23, 명청사학회, 2005. 4.
- 송병렬, 「李鈺의 擬人體 散文 一考察」,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송혁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허목 계열 남인 문단의 산문론-동시기 김창협 계열 산문론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송희준, 「명미당 이견창의 의식세계의 한 국면-〈鹿言〉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신승훈, 「점필재 金宗直의 〈弔義帝文〉에 관하여」,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朝鮮中期에 나타난 文學的 典範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柳夢寅·李睟光·申欽·許筠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신영주, 「『이운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생활 모습」,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신은경, 조선 후기 예술과 '豪'의 미학」,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6.
- 신익철, 「詩選集 『鮮音』과 丁學淵 가을 연작시의 정서」, 『장서각』 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_____, 「자료 해제: 새롭게 발굴된 『於野譚』 40화」,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신장섭, 「石北 申光洙의 端宗 관련 시 연구」, 『어문연구』 1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겨울호.
- 신태영, 「明使의 서경·송경·한양의 시적 형상 연구」,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신하운, 「18세기 조선문인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형상화-秋齋 〈外夷竹枝詞〉를 중

- 심으로, 『중국어문학지』 18, 중국어문학회, 2005.
- 심경호, 「강화학파의 假學 비판」, 『양명학』 13, 한국양명학회, 2005. 2.
- _____, 「개화 및 국난 시기의 유학사상과 한문학」, 『서정시학』 27, 도서출판 서정시학, 2005. 9.
- _____, 「민족문학과 민족지성의 산실, 강화도」, 민족문학사연구소,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건넌 길까지』, 창비, 2005. 11.
- _____, 「연암 박지원의 논리적 사유 방법과 關異端論 비판」,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조선 후기 지성사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하여」,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 안대회, 「『稗林』과 조선 후기 野史叢書의 발달」, 『남명학연구』 20, 남명학회, 2005. 12.
- _____, 「츄로 해석한 문학, 李奎象의 奇論」,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茶山 제자 李綱會의 利用厚生學」, 『한국실학연구』 10, 한국실학학회, 2005. 12.
- _____, 「진정한 개성창조와 시문 창작법, 허균의 문학론」,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楚亭 朴齊家の 인간면모와 일상-小室을 맞는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_____, 「하버드대본 한고관외사의 자료적 가치」, 『한고관외사』 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
- 안장리, 「藍溪 表浴沫의 生涯와 文學」, 『남명학연구』 20, 남명학회, 2005. 12.
- _____, 「愚伏 家門 所藏 古書의 현황과 특징-한국관 별집류를 중심으로」, 『장서각』 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양진석,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규장각』 28, 서울대 규장각, 2005.
- 어강석, 「牧隱 詩에 나타난 東人意識과 그 樣相」, 『정신문화연구』 1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겨울.
- 여운필, 「桐溪 鄭蘊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오용원, 「嶺南地方 樓亭文學 研究(1)-慶州, 淸道, 永川, 安東 地域 所在 樓亭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옥영정, 「陶南 소장 고서의 書誌의 분석」,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학회, 2005.
- 유영봉, 「西山大師가 朝鮮 中期의 佛敎界에 불러일으킨 ‘崔致遠 바람」,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유호진, 「南冥 시에 나타난 “上達”의 정신경계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연」,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윤재민, 「19세기 증인문학의 재조명-조희룡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윤재환, 「17세기 漢詩에 수용된 日常의인 것의 意味와 限界-梅山 李夏鎭의 詩를 中心으로」,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_____, 「梅山 李夏鎭의 詩에 드러난 寫實的 表現의 意味와 限界」,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_____, 「梅山과 玉洞의 금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金剛途路記〉와 〈東遊錄〉, 〈東遊篇〉을 중심으로」,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_____, 「玉洞 李澈의 詩에 나타난 精神世界」,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貞山 李秉休의 詩文學 研究-學者的 意識世界的 具顯을 中心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윤지훈, 「雪橋 安錫徹의 金剛山 遊記」,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윤호진, 「『稗林』의 構成과 그 價値」,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_____, 「梅溪 曹偉의 學問淵源과 詩世界」, 『남명학연구』 20, 남명학회, 2005. 12.
- _____, 「蓀谷 李達의 시에 대한 評價의 範疇와 그 批評樣相」,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6.
- 이강욱, 「19세기 말 야담의 새로움-『此山筆談』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
- _____, 「남명 조식의 일화와 설화」, 『남명학보』 4, 남명학회, 2005. 11.
- 이경숙, 「石鼓文字形과 說文解字 小篆字形에 대한 고찰 및 비교」,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이경순, 「洪樂純 文學 研究」,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이경하, 「17세기 士族 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
- _____, 「여성어문생활사 서술을 위한 시론」(제14차 정기연구발표회 발표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7.
- 이관성, 「陶厓 洪錫謨의 생애와 시세계」,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이근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_____, 「紀昀과 조선문인과의 교유와 그 의미」,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이규성, 「崔時亨에서 ‘표현’과 시간」,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이규필, 「이덕무의 『耳目口心書』에 대한 고찰」,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이기대, 「『古詩批評』의 評點 양상 연구」,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이동환, 「燕巖 思想의 限界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이민홍, 「泮中雜詠에 나타난 18세기의 성균관」, 『문헌과 해석』 30호, 문헌과해석사, 2005. 봄호.
- _____, 「中原 諡法の 수용과 韓國 歷代 帝王의 諡號」,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_____, 「退堂 柳命天 流配文學의 研究-〈烏川錄〉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5-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12.
- _____, 「韓文化의 전개와 儒家의 理念」, 『인문과학』 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8.
- 이상주, 「芸窩 洪重聖의 文學論에 대한 考察」, 『남명학연구』 19, 남명학회, 2005. 6.
- 이성민, 「汾西 朴瀾의 삶과 文學的 志向」,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이승매, 「조선 전기 詞文學 인식과 그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이승수, 「〈호질〉과 〈허생전〉의 독법 하나: 김성탄 서사론의 적용」, 고소설연구 20, 월인, 2005. 12.
- _____, 「對淸 使行과 荊軻의 文學적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이영호, 「楓潭 權克中의 思想과 詩文學」, 『도산학보』 10, 도산학술연구원, 2005.
- 이은주, 「申光洙의 〈關西樂府〉 小考」,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休翁 沈光世의 詠史詩와 歷史觀」,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이의강, 「謹齋 安軸의 詩文에 투영된 性理學的 思惟 體系」,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이의철, 「조선전기 館閣派 文人의 隱逸과 權力的 문제」,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여름호.
- 이종득, 「관악산 자하동의 역사와 紫霞 申偉」,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남양주 영지동의 정관제와 이단상」,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은거의 땅 연암협, 실학의 땅 안의」,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_____, 「이규상이 시로 그린 풍속화」, 『문헌과 해석』 33, 문헌과해석사, 2005년 겨울호.
- _____, 「일제강점기의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潛谷 金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_____, 「잠곡 김육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_____,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한국문화연구원, 2005. 12.
- _____, 「풍경 속의 시인: 정도전, 〈김거사의 시골집을 찾아가면서(訪金居士野居)〉」, 『시안』 제8권 1호, 시안사, 2005.
- _____, 「后山 許愈의 詩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19, 남명학회, 2005. 6.
- 이종주, 「연암의 불교적 인식과 사유체계」,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이종호, 「신유한의 문예인식과 문장론」,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이준규, 「〈梁參議傳〉의 敘事構造와 그 의미」,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_____, 「沈遠悅 문학에 나타난 民衆의 情緒와 해체적 양상 고찰-長篇古詩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6.
- _____, 「沈遠悅의 〈梁參議傳〉 研究 -人物의 性格과 文體의 特徵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이지양, 「연암 박지원의 생활 특징과 문화예술사상」,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이철희, 「전의감동 시절 연암 박지원을 그린 두 편의 肖像」,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유희적 시세계」,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이택동, 한시에 투영된 자연과 현재적 함의,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2.
- 이현식, 「〈虎叱〉, 청나라 인식에 관한 우언」,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이현일, 「『三溟詩話』로 본 18세기 漢詩史」,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5.
- _____, 「새 자료 배와 『重言』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이혜순, 「姜靜一堂의 禮 담론-조선후기 女性知性史 서술의 일환으로」,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가을호.
- _____, 「임윤지당의 정치담론-조선후기 여성지성사 서술의 일환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이홍식, 「東谿 趙龜命의 假傳文學 연구」,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가을호.
- _____, 「沈澐 洪吉周의 初期 古文論 研究-『峴首甲藁』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이희목, 「寧齋의 『北游詩草』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임원혁, 「明·清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_____, 「무명자와 그 우언」,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임유경, 「〈晉州敍事〉와 〈晉州殉難諸臣傳〉의 거리」,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_____, 「徐浩修의 『燕行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임재완, 交河 遷都說에 대한 李恒福의 筭子文 研究」, 『서지학보』 29, 한국서지학회, 2005. 12.
- 임준철, 「조선중기 한시에서의 전형 意象의 계승과 미감의 확충(1)-邊塞風, 游俠風의 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_____, 「조선중기 漢詩에서의 典型 意象의 계승과 美感의 확충(II)-邊塞風, 游俠風 意象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가을호.
- 임채명, 「朝鮮文士들의 詩文에 나타난 日本認識과 交流樣相-주요 壬亂 前까지의 對日關係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임형택,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6.

- _____, 「20세기 동아시아의 『國學』과 오늘 우리의 학문」, 『영남국어교육』 9, 영남대 국어교육과, 2005.
- _____,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 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한국실학연구』 9, 2005. 6.
- 장연호, 「『太平廣記』의 한국 傳來와 影響」,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4.
- 장유승, 「〈花王本記〉의 번역 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 _____, 「출생의 비밀, 刺繡로 풀다-延安金氏 繡譜帖」,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西京詩話』 연구-지역문학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_____, 最古의 <關東別曲>-택당 이식의 <翻關東別曲>」,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전관수, 「圃隱集 刊行과 道統論의 관계에 대한 研究」,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전송열, 李達 詩와 15·6세기 學唐과의 관련 양상」, 『열상고전연구』 21, 열상고전연구회, 2005. 6.
- 정도상, 「星湖의 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정 민, 「사인암과 이인상·이윤영의 題刻」, 『문헌과 해석』 30, 문헌과해석사, 2005년 봄호.
- _____, 「새 발굴 『燕巖先生書簡帖』의 자료적 가치-附: 『연암선생서간첩』 원문 및 역주」,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_____, 「한국 출판의 비전, 우리 고전의 광맥에서 켜다」, 『출판문화』 제42권 7호 (통권476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7.
- _____,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_____, 「『睡餘三筆』을 통해 본 沈澐 洪吉周의 사유방식」,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_____, 「고전 독서방법론의 양상과 층위」, 『한문교육연구』 25-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12.
- 정민·박철상, 「『燕巖先生書簡帖』脫草 원문 및 역주」,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정상근, 「〈壽聖宮夢遊錄〉 연구」, 『연민학지』 12, 연민학회, 2005.

- 정선모, 「高麗詩壇에 있어서의 杜詩受容 樣相 考察」,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정소연, 象村 申鉉의 절구와 시조 구조 비교,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정숙인, 「『海東竹枝』에 나타난 歲時風俗 考察—〈名節風俗〉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겨울호.
- 정영문, 「回答兼刷還使의 使行文學研究」, 『온지논총』 12, 온지학회, 2005.
- 정우봉, 「19세기 성령론의 재조명-최성환의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6.
- 정은진, 「蟾窩 李玄煥의 詩論」,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12.
- 정일남, 「『熱河日記·渡江錄』의 康世爵 삽화와 『藥泉集』의 <康世爵傳>의 비교」,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_____, 「박제가 懷人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정재철, 「대학 한문교육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진공영역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정지용, 「崎庵 鄭弘溟의 '感遇'詩 研究」,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정출현, 「서거정과 김시습: 조선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정학성, 「우연 양식의 서사 구조와 비판정신」,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정한기, 「朴昌元の <關東別曲> 한역시에 나타난 한역의 배경과 그 양상」,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8.
- 정환국, 「전기소설 삽입시의 미감- 초기소설의 양식화와 그 서사적 맥락에 대한 지표으로써」,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학회, 2005.
-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구성방식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8.
- 조남권, 「자료소개-蘭社諸位의 漢詩」, 『온지논총』 12, 온지학회, 2005.
- 조동일, 「학문 후속세대의 자각과 작전」,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10.
- _____, 「한국, 동아시아, 세계문학사의 중세」, 『비교문학』 35, 한국비교문학회, 2005.
- 조용희, 「조선중기 '興'의 詩論과 그 적용 양상- 興趣論의 수용과 비평적 적용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봄.
- 조창록, 「玉垂 趙冕鎬의 '詞'에 대하여」,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조태성, 「조선시대 불가한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

- 어문학회, 2005. 10.
- 조평환, 「姜靜一堂 詩, 文의 내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12, 온지학회, 2005.
- 좌 강, 「許筠政治思想研究」,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주승택, 「朝鮮末葉 漢文學과 姜瑋의 位相」,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주호찬, 「李奎報의 白樂天 次韻詩-佛敎認識을 中心으로」, 『한문교육연구』 25-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12.
- 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진재교, 「19세기 筭記體 필기의 글쓰기 양상-『智水拈筆』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
- _____, 「『智水拈筆』 연구의 一端」,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최 식, 「李憲明이 바라본 沆瀣 洪吉周」,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최경춘, 「배와 김상숙의 隱逸과 旅程의 시」, 『문헌과 해석』 31, 문헌과해석사, 2005년 여름호.
- _____, 「朝鮮後期 書藝論의 一局面-李匡師, 姜世晁, 金相肅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1, 동양한문학회, 2005. 8.
- 최광범, 「麗末 漢詩의 風格의 構圖」, 『한문학연구』 19, 계명한문학회, 2005. 2.
- 최기숙, 「18·19세기 '複數' 창작 진'의 창작 경위와 글쓰기 방식-흔적, 기억, 창조' 언어적' 인간의 탄생과 棲息」,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6.
- _____, 「『호산외기』의 서술 방식과 인간관: 19세기 중인 문화의 건강성과 고유성에 대한 발견」, 『열상고전연구』 22, 열상고전연구회, 2005. 12.
- 최석기, 「林溪 兪好仁의 志趣와 詩文學」, 『남명학연구』 20, 남명학회, 2005. 12.
- 최재남, 「유배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_____, 「李民畝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2.
- 하정승, 「정몽주 문학에 나타난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그 실천양상」,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한기형, 「'이념의 구심화'에서 '실용적 확장의 중식구조'로」,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12.
- 한의승, 「신발굴 한문소설 <三海誌>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2, 문헌과해석사, 2005년 가을호.
- 한철호, 「서평: 『매천야록』 바로 읽기를 통한 한국근대사 연구의 초석 쌓기(황현,

-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민족문학사 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한태문, 「通信使 往來를 통한 韓日 文化交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12.
- 허권수, 「高麗後期 性理學과 漢文學의 交涉樣相」,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12.
- 허왕욱, 「지봉유설 문장부 국역의 문제」, 『고전문학과 교육』 9, 청관고전문학회, 2005. 2.
- 허휘훈, 「북한에서의 허균과 그 문학 연구」, 『한문학보』 12, 우리한문학회, 2005. 6.
- 홍순래, 「夢讖詩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11.
- 황위주, 「한국 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학회, 2005. 6.
- 황인건, 「박제가 시에 나타난 김서관 체험 고찰-제1차 재임기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9,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5. 12.
- 황재문,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10.
- Emanuel Pastreich, 「조선후기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2.